

學校文法論〔五〕

李 喆 洙

〈本會理事・仁荷大 教授〉

(2) 국어Ⅱ의 文法指導內容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종전에 人文系 고등학교 전과정에 부과했던 문법을 국어Ⅱ에 포함시켜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 사회 과정에서 이수하도록 방침을 바꾸고, 종전에 2종(검인정) 도서인 5개종의 문법 교과서를 없애고 1종(국정) 도서로서 1개종의 문법 교과서를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1982.3.5).

1종 교과서로 통합 편찬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재 學校文法の 용어와 체계가 교과서마다 달라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함으로써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공통된 학교문법을 학습하게 하여 한국인으로서 기본 교양을 갖추게 한다.”

먼저 기초 연구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기로 하고, 기초 연구를 성균관대학교 부설 大東文化研究院에 위탁했다(1982.3). 1984년 5월 檢討本이 나왔고, 1985년부터 새로 개발된 문법 교과서로써 저도하게 되었다.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개발 편찬한 문법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¹⁾

새 文法 교과서의 성격 새 문법교과서의 편찬 목적은 학생들이 논리적이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하도록 기본적인 文法知識을 습득하는 데 있다. 문법지식을 통하여 국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교과서의 편찬 목표다.

문법 교과서의 敍述方式은 문법체계 위주로 하지 않고 예문을 설명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 非文法的 문장을 예문으로 선정하

1) 여기에 열거한 내용은 강 신형의 “統一文法敎科書의 主要內容” 「한국어연구」 8, KBS 한국어연구회, 1985, pp. 5-61.의 내용을 발췌 보충한 것이다.

였는데 이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문법’을 만들기 위하여 택한 서술 방법이다. 그리고 연습문제를 이전의 어느 문법 교과서보다 많이 싣고 또한 그 비중을 크게 높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결국 문법 교과서는 문법체계에 대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국어문법 현상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편찬되었다. 그리고 새 문법 교과서는 종래의 여러 學說을 통일한 것이 아니라 기왕의 업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80년대의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되도록 새로운 文法理論을 가지고 단일 교과서로 편찬한 것이다.

文法用語 새 문법 교과서의 문법용어는 1963년 7월 23일 문교부에서 마련한 學校文法 統一案에서 제시하고 있는 252개의 문법용어를 그대로 사용했고, 그 밖의 문법용어 중 종전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술어가 바뀐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語末語尾와 先語末語尾** 語末語尾 *final ending*는 용언의 활용어미로서 선어말 어미에 대응되는 술어다. ‘먹었다’에서 ‘—다’는 어말어미고, ‘—었—’은 선어말 어미다.

先語末語尾 *prefinal ending*는 종전에 사용하던 補助語幹을 없애고 전에 사용하던 보조어간을 선어말 어미와 接辭로 나누었다. 대부분의 보조어간은 선어말 어미에 편입되나, 使動 被動의 보조어간과 強勢 보조어간은 접사다.

종래의 보조어간 중 선어말 어미로 편입된 것과 使動 被動의 접사는 그 성격상 큰 차이가 있다. 時制나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모든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일정한 文法범주를 표시할 뿐 文章構造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데 비해 사동 피동의 접사는 붙을 수 있는 용언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접사가 붙지 않은 용언이 서술하는 문장과는 그 구조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같이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使動 被動의 접사는 單語形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強勢接辭는 어휘적 의미를 더하는 것이므로 접사로 다룬다.

(2) **안은文章과 안긴文章** 안은문장은 문장 속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서 종전의 包有文, 成分複文, 가진절 등으로 지칭되던 문장이다.

☞ 철수가 그린 풍경화가 특선으로 뽑혔다.

위 문장은 관형절(철수가 그린)을 안은 안은文章이다.

안긴文章은 한 문장이 절의 형태로 바꾸어서 큰 문장 속에 안긴 것으로 종전에 성분절이라 이르던 節을 이른다.

㉮ 토끼는 앞발이 짧다.

위 문장에서 서술절(앞발이 짧다)은 한문文章이다.

(3) 만否定과 못否定 否定文의 유형으로 긴부정문, 짧은부정문, 안부정문, 못부정문 등으로 나누고 있다.

안否定文은 주체, 곧 動作主의 의자에 의한 행동을 부정하는 부정문으로서 부정사 ‘아니’가 사용된다. ㉮ 학생이 아니다.

못否定文은 주체의 능력이나 외부의 어떤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부정사 ‘못하다’가 사용된다.

㉮ 운동장이 넓지 못하다.

(4) 雜文章과 畧文章 종전에 순수한말로 ‘홀월, 겹월’이라 하거나, 한자말로 ‘單文, 複文’이라 하던 것을 混種語인 雜文章, 畧文章으로 타협하고 있다.

(5) 補助的 連結語尾 보조용언을 본용언에 연결시켜 주는 어미로서 종전에 轉成語尾의 하나인 副詞形 어미(—아, —어, —제, —지, —고)를 연결어미로 포함시키고 있다.

(6) 平敘形 종전의 문법서에서 서술형이라고 부르던 것인데, 이 말은 문장 성분으로서의 敘述語와 혼동되기 때문에 취하지 않은 것이다.

(7) 不完全動詞 불완전동사와 不具動詞 중 후자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지체부자유 학생을 고려한 것이다.

(8) 依存名詞 불완전명사를 의존명사로 한 것은 불완전 명사의 ‘不完全’이라는 개념이 불명료하기 때문에 바꾼 것이다. ‘것’과 같은 명사는 문장 중에 홀로 자립할 수 없고 반드시 관형어 뒤에 와야 한다. 즉, 그 성립성에 있어서 構造的으로 관형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새 文法 교과서의 차례

새 文法 교과서의 目次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필자의 人文系 高等學校「문법」(三和出版社, 1979)²⁾의 차례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2)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사용되었던 敎科書 定本『문법』5종 중의 하나. 김완권·이병근(박영사), 김민수(어문자), 권중(과학사), 이철수·이길록(삼화출판사), 이종백·안병희(보진재).

문법(문교부, 1985)	문법(삼화출판사, 1979)
<p>I. 총 설</p> <p>1. 언어와 문화, 사회</p> <p>(1) 말과 생각</p> <p>(2) 언어와 문화, 민족</p> <p>2. 문법과 문법 지식</p> <p>(1) 문법의 뜻</p> <p>(2) 문법 지식</p> <p>II. 단 어</p> <p>1. 문장과 단어</p> <p>(1) 어절</p> <p>(2) 형태소</p> <p>(3) 단어</p> <p>2. 품 사</p> <p>(1) 명사, 대명사, 수사</p> <p>(2) 조사</p> <p>(3) 동사, 형용사</p> <p>(4) 관형사, 부사, 감탄사</p> <p>3. 단어의 형성</p> <p>(1) 파생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p> <p>(2) 합성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p> <p>(3) 한자에 의한 단어의 형성</p> <p>III. 문 장</p> <p>1. 문장의 성분</p> <p>(1) 문장 성분의 성립</p> <p>(2) 주성분</p> <p>(3) 부속 성분</p> <p>(4) 독립 성분</p> <p>2.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p> <p>(1) 사동과 피동</p> <p>(2) 시간 표현</p> <p>(3) 높임과 낮춤</p> <p>(4) 문장의 종결</p>	<p>I. 우리의 언어 생활과 문법</p> <p>1. 언어 생활과 문법</p> <p>(1) 우리의 언어 생활</p> <p>(2) 말과 글자</p> <p>(3) 문법의 성격과 목적</p> <p>(4) 문법의 여러 갈래</p> <p>2. 국어와 국자의 이해</p> <p>(1) 국어와 표준말</p> <p>(2) 국어의 표기법</p> <p>(3) 국어의 특징</p> <p>II. 말소리와 여러 발음 현상</p> <p>1. 음운과 음성</p> <p>2. 음운의 종류</p> <p>(1) 모음 체계</p> <p>(2) 자음 체계</p> <p>3. 음운의 이어짐</p> <p>(1) 연음</p> <p>(2) 소리의 가락</p> <p>(3) 소리의 대립</p> <p>4. 음운의 변동</p> <p>(1) 소리의 동화</p> <p>(2) 소리의 회피</p> <p>(3) 끝소리의 변이</p> <p>(4) 소리의 첨가와 생략</p> <p>III. 문장의 해부</p> <p>1. 말의 단위와 문장</p> <p>2. 문장의 형식과 문법</p> <p>(1) 문장의 기본 형식</p> <p>(2) 기본 문형과 성분</p> <p>3. 성분 관계와 구문 도해</p> <p>(1) 성분의 문법적 관계</p> <p>(2) 구문 도해</p>

1 문장과 이어진 문장

의 문장

문장

(4) 문장과 이야기

Ⅳ. 말소리

1. 국어의 음운

2. 모음과 자음

(1) 모음

(2) 자음

3. 소리의 길이

4. 음절

5. 음운의 변동

(1) 음절의 끝소리

(2) 자음동화

(3) 구개음화

(4) 모음 동화

(5) 모음 조화

(6) 음운의 축약과 탈락

(7) 된소리되기

6. 사잇소리 현상

7. 어감의 분화

4. 복잡한 문장

5. 문장 성분의 배열

6. 문장의 종류

(1) 종지법 어미로 본 문장의 갈래

(2) 서술어 성질로 본 문장의 갈래

(3) 문장의 구성으로 본 문장의 갈래

Ⅳ. 글의 짜임과 표현

1. 글의 짜임과 문맥

2. 문장의 이어짐

3. 글의 단락과 문단의 이어짐

Ⅴ. 품사의 특성과 기능

1. 품사의 원리

2. 명사·대명사·수사

3. 조 사

4. 동사와 형용사

5. 관형사와 부사

6. 감탄사

7. 품사의 전성

8. 단어의 구성

Ⅵ. 바르고 고운말

1. 말의 호응

2. 높임말법

3. 국어의 순화